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이벤트 '풍성'

주민번호 앞 6자리 '1' 평일 50% 크리스마스 주간 어린이 선물 증정 이용권 할인 31일까지 연장 운영 한국관광공사 '우수 관광지' 선정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감사 이벤트로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 '1'이 들어가는 사람은 평일에 모든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남녀 커플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명이 1명 가격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에 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을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아이와 함께 치유스마스' 주간도 운영한다.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한 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 또는 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증정하고 개인 블로그에 체험 후기(사진 5장, 글자수 500자 이

상)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여행 선물 세트를 증정하는 후기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양치유센터 이용권도 31일까지 연장해 판매한다.

기본 프로그램 이용권을 30장 이상 구매할 경우 60% 할인하며 프리미엄 이용권은 10장 구매 시 30% 할인, 20장 구매 시 40% 할인, 30장 구매 시 50% 할인을 할 수 있다.

해양기후치유,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 이용권은 30장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업 스트레

스를 풀 수 있도록 수험생과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5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완도에서 힐링하며 특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 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해양치유 시설로 개관 이후 5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 주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치유 시설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2026년도 국고건의 현안사업 발굴 강진군, 신규 25건 관련 논의

강진군이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6년도 국고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건의 사업으로 1차 발굴된 총사업비 4640억원(국비 3618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25건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강진만 노을 해상작도시설 조성(1000억원) △월출산 권역 센트럴파크 조성(500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180억원) △성전면 월평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250억원)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150억원) △숲속도서관 조성(50억원)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2400억원) △강진제2일반산업단지 하수도 기반시설 조성(133억원)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강진군은 이번에 발굴된 국고 건의 사업을 추후 민간 전문가와 전남도,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해 최종 확정하고 2026년 부처예산안 확정 시점인 5월까지 건의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구 의원인 문금주 의원과 연대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영암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만1672농가 대상

영암군이 지난 13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5톤 이하 어선 소유 소규모 어가도 직불금 지급을 실시한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1672농가에 366억4100만원을, 어가 직불금은 22어가에 2860만원을 지원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보다 인상된 130만원이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공익직불제 신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농가 준수사항을 100% 이행·신청하면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검토를 마쳤으며 직불금 적정 신청·지급을 위한 농업인 안내·교육도 병행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공된다.

어촌에 거주하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5톤 이하 어선 소유 등 경영 규모에 해당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신청한 34곳 어가에 대해 최종 이행점검을 마친 영암군은 22개 어가에 각각 1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 문화공감 토크 콘서트 유홍준 교수 초청

진도군이 17일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공감 소통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진도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특별한 진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의 특별 강연 후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갖는다.

유홍준 교수는 인문학 인기 서적(베스트 셀러)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국보순례' 등을 저술했으며 제18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도군은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선정돼 예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문화도시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세대 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도군의 문화유산을 공유, 다양한 청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백재현 기자



강진군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지난 10일 강진을 부춘마을 체험관에 모여 김장 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자원봉사대, 김장 김치 나눔

지난 10일 강진군 자원봉사자 50여명이 강진을 부춘마을 체험관에 모여 2024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제12회 강진군자원봉사자대회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를 통

해 읍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총 1004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김장 준비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최재영 강진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행사가 강진군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 4est수목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

국가생물자원 체계적 증식관리

해남군은 4est수목원(포레스트수목원)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이어 산림청 국립수목원으로부터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희귀·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보전기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수목원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생물자원의 체계적 증식관리를 위한 보전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4est수목원은 대흥란 등 희귀식물 56



종, 좀비비추 등 특산식물 29종 등 총 85종의 식물자원을 현지의 보전(특정식물을 온실·식물원 등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 관련 석사학위 및 식물기사 2인 이상의 관리인력 등 지정 조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2024년 산림청 국립수목원 공모사업으로 '전라권역 희귀·특산식물 조사, 수집'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주소 기반 자율주행로봇 배송 실증 무안군, 주소정보 활용성 향상

무안군은 지난 11일 롯데아웃렛 남악점에서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배송 사업 실증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정형구 무안부군수, 롯데아웃렛 관계자, 유관기관, 기업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배송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쇼핑몰 이용객 중 유아동반객,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불편 약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쇼핑 물품을 수거해 주차구역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다.

시연회는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매장을 돌며 물품을 구입한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율주행 로봇배송을 신청하면 로봇이 각 매장에서 구매물품을 받아 주차장 배달존까지 물품을 배달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자율주행 로봇은 주소정보 실내지도를 활용해 매장과 도착지의 최적 경로를 이동, IoT 기술을 활용한 엘리베이터 호출 및 자동문 연동 기능을 통해 층간이동과 실내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쇼핑 매장 내 상세주소판과 사물주소판을 부착해 주소정보 활용성을 높였다.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캐릭터화한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로보팡'을 이용해 아이들이 도로명주소와 자율주행 로봇배송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무안=김행언 기자